

# 금양빌딩→광주 ‘n차 감염’ 확산세

### 사찰·사우나 거쳐 배드민턴 동호회로 확대

### 이용섭 “자가격리자 관리...확산 차단 최선”

감염된 사람이 다시 주변사람을 감염시키는 이른바 ‘n차 감염’이 광주에서 계속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문관

매 사업자의 사무실이 자리한 금양오피스텔에서 시작된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세는 사찰, 교회, 사우나, 고시학원을 거쳐 배드민턴 동호회와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확

대되고 있다.

전날(12일)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 T월드 대리점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총 8명이다.

또 광복사와 일곡중앙교회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전수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었으나 2주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전 의무검사’에서 양성 확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입국자 중에서도 2주간 자가격리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첫 사

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시작된 광주 지역 코로나19 2차 집단감염은 광주 43번과 83번 확진자부터 시작됐다. 43번 환자는 금양오피스텔 1001호, 83번 환자는 505호 사무실 운영자다.

이들은 대전 방문업체 확진자와 지난달 수시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방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 후 광주에 전파했다는 게 보건당국의 분석이다.



“2차기해 멈춰라” 1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광주·전남 여성, 노동, 인권 단체 대표들이 성범죄 비호 업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A사는 최근 노조활동 중인 여성간부를 사측 관리자가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묵인하는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하는 등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

##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안팎인 76번 환자, 확산 키웠다

### 최초 진술 때 ‘동호회 활동’ 숨겨...고발 검토는 아직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드민턴 동호회가 새로운 집단감염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2명이 추가 발생해 확진자는 가족 등을 포함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배드민턴 동호회는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가 뒤늦게 동호회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북구 중흥동에 사는 70대 남성 A씨(76번 환자)는 애초 금양오피스텔 접촉자로 분류됐다.

금양 관련 55번 환자와 접촉했고 무증상 환자로 지난 1일 검사

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그후 8일이 지난 9일쯤 확인됐다.

북구 운암동에 사는 50대 남성 B씨(137번 환자)의 감염경로를 확인하면서다. B씨는 5일 증상이 발현돼 7일 검체 채취 후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B씨의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동선을 추적했으나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았다.

동선 범위를 넓혀 지난달 말부터 확인하자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사실이 확인됐다.

76번 환자가 배드민턴 동호회 C클럽 소속이라는 것도 덩달아 드러났다.

역학조사 결과 76번 환자가 속

한 C클럽과 137번 환자가 활동하는 D클럽이 29일과 30일 이틀간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친선 경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애초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29일과 30일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남대 스포츠센터 근처에 있었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간의 공백기 동안 A씨의 밀접접촉자인 동료 회원들은 병원과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일상 생활을 이어갔다.

뒤늦게 동호회 활동 사실을 파악한 광주시는 C클럽과 D클럽 등 회원 60명 명단을 확보하고 가족 등 97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가 회원과 가족 등 확진자 10명을 찾아냈다.

배드민턴의 경우 밀폐된 실내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단식 경기

는 밀하지만 복식 경기는 공기 중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경기 후 식사 등 음식을 함께 먹을 경우 감염 확산 우려는 더 크다. 보건당국은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동선을 파악하는 규정보다 더 조사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동선을 숨긴 것인지도 파악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여부는 ‘의도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박항복지건강국장은 “심층역학조사팀이 조사 범위를 규정보다 1주일 이전, 10일 이전까지도 확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접촉자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며 “76번 환자의 경우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 여객선 무임승선에 승객 지갑까지 훔친 60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몰래 여객선에 타 승객의 지갑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전남 목포에서 신안군 신의도로 가는 여객선 선실에서 승객의 지갑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여섯 차례에 걸쳐 금반지와 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승객명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 여객선에 무임승선한 후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여객선터미널과 체크카드 사용처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달미를 잡혔다.

해경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반지로는 숙소비를 대신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무죄 선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40대에 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전원 무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당신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수락한 A씨는 다음 날 자신의 계좌로 1400만원과 1000만원, 1900만원을 세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

A씨는 당시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1400만원과 1000만원을 차례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19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한 A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현금 인출책 조직원과 달리 인출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 신원 노출을 피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협조했고 조직원의 차량을 촬영하는 등 나름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 지적장애인 집단 폭행·감금한 일당 구속

제주에서 조폭을 사칭해 몰려다니며 장애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감금,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동상해, 감금, 갈취, 공갈 등의 혐의로 A씨(37) 등 11명을 입건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제주시청 인근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7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18세의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17~37세의 남녀 무리로 몰려다니던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조폭 구성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말을 안 듣거나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 중에도 지적장애인이 있어 피해자들과는 학교 등을 통해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22)를 불러내 4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뒤 기절한 피해자를 공원에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얼굴이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CCTV가 없는 곳을 골라 이동하기도 했으며 한타산 공동묘지로 끌고 가 “묻어버리겠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